

# Special Column

##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모두들 아시겠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어와나 클럽의 뒤에는 항상 헌신된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열쇠는 신실하고 진취적인 리더십의해 감화된 클럽원들과 그로인해서 ‘전도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구들을 잘 이끌어 전도하는 클럽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클럽원에게는 어느 정도 리더십의 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십을 계발하기 위해 격려하고 도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 주변에는 어와나 클럽으로 데려올 친구가 10여명씩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보물인 것입니다.

약 20여년 전에 1년차 Pal 클럽원인 짐 젠슨(Jim Jensen)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한주 내내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어와나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어려운 일은 모두 짐이 해뒀고 제가 할 일은 단지 제 차에 그의 친구들을 가득 태우고 기쁜 마음으로 어와나 클럽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에 있으실 것입니다. 선생님의 차가 ‘버스’ 역할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실 것입니다. 짐은 수년 후에 짐 스스로가 Pal 클럽 감독관이 될 때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친구 데려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20년 후의 어느 날 짐을 만나 함께 회상에 잠겨 당시 우리들이 데려왔던 많은 클럽원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이 한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 월스(Don Wubs)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요.” 돈도 짐을 통해 제 차로 어와나 클럽에 왔던 친구들 중 하나이면서 그 또한 진정한 ‘전도왕’이라 불리운 소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을 어와나 클럽으로 인도했던 돈이 지금은 Pioneer 클럽의 감독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짐의 마음 또한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알아보니 짐 젠슨의 클럽과 돈 월스의 클럽이 함께 지난번의 종서부 어와나 게임즈에 출전하여 같은 게임트랙에서 경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바로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짐과 돈은 1964년 어와나 게임즈 챔피언 대회에 각각 자신의 클럽 팀 코치로 참여했습니다. 짐과 돈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지요. 20년 전에 정말 작은 소년이었던 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여러 선생님께 도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상급은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번역 : 류구영 기자